

- 주요 뉴스: 미국 4월 소비 및 생산 지표, 전월비 증가. 성장동력 양호하다는 신호 발신
 - 연준 의장, 물가하락이 명확하게 발생할 때까지 통화긴축 지속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의 7월 0.5%p 금리인상 가능성도 존재
 - 일본은행 부총재, 물가상승 압력 불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유지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4월 소매매출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2.0%], 달러화 약세[-0.9%], 금리 상승[+1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기술주 및 은행주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 강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경제봉쇄 완화 기대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 가치는 1.1% 상승,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이 반영
독일은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1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67.0원, -8.0원) 0.6% 하락, 한국 CDS 하락

		5/17일	5/16일	전일대비			5/17일	5/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88.9	4,008.0	2.02%	국채 금리 10y	미국	2.99%	2.88%	10bp
	유럽	438.97	433.67	1.22%		독일	1.05%	0.94%	11bp
	중국	3,093.7	3,073.7	0.65%	CDS 5y	한국	45bp	46bp	-1bp
	일본	26,660	26,547	0.42%		중국	80bp	82bp	-2bp
	한국	2,620.4	2,596.6	0.92%	위험 지표	EMBI+	-	415	-
환율	달러지수	103.30	104.19	-0.85%		VIX	26.10	27.47	-4.99%
	유로화	1.0550	1.0434	1.11%		WTI유	112.40	114.20	-1.58%
	엔화	129.38	129.16	-0.17%	원자재	구리	424.0	419.7	1.02%
	위안화	6.7377	6.7861	0.72%		금	1,815.2	1,824.1	-0.49%
	원화	1,275.0	1,284.1	0.7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4월 소비 및 생산 지표, 전월비 증가. 성장동력 양호하다는 신호 발신

-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9%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이는 고물가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 회복력이 강하다는 의미. 항목별로는 자동차, 가구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 휘발유 부문은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
-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늘어난 가계저축과 양호한 노동시장이 가계소비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 한편 오미크론 영향 감소 등으로 소비자들은 대면접촉을 늘리면서 재화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소비로 이동
- 4월 산업생산 역시 전월비 1.1% 늘어 전월(0.9%) 및 예상치(0.5%) 상회. 이 또한 4개월 연속 증가세.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뿐 아니라 생산 역시 긍정적 상황임이 확인. 이러한 결과는 양호한 노동시장 지속 기대를 유발
- ING의 James Knightley는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은 국내수요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 한편 이로 인해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연준은 큰 고민 없이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
- 금일 결과는 2/4분기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공. 실제로 애틀랜타 연은은 2/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1.8%→2.5%).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지속될수록 소매매출이 금년 하반기에 결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의장, 물가하락이 명확하게 발생할 때까지 통화긴축 지속

- 파월 의장은 지금은 물가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시기라고 강조. 그렇지 않다면 공격적인 조치를 통해 더욱 긴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 필요 시 정책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첨언
-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성장률이 향후 18개월 동안 장기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강력한 노동시장과 양호한 가계소비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금리인상이 결국 공급병목 해소에 의존한다고 진단. 연준의 대응이 공급병목 해소에 충분한지 혹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

■ 미국 4월 설비가동률, '07년 이후 최고치. 공급차질 완화의 징후

- 해당 가동률은 79.2%로 전월 대비 0.6%p 상승. 이번 결과는 생산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공급부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

■ BofA, 투자자의 현금 비중이 '01년 이후 최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

-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중앙은행의 매파적 정책을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 Michael Hartnett 스트래티지스트는 당장은 약세장 속의 일시적 반등(Bear-Market Rally)을 기대할 수 있으나, 주가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의 7월 0.5%p 금리인상 가능성도 존재

- 뉘트 총재는 7월에 0.25%p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향후 수개월 동안 발표되는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의 확산을 나타낸다면 금리인상 폭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

■ 일본은행 부총재, 물가상승 압력 불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유지할 방침

-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통해 기업이익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적정 수준의 물가압력 유지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

■ 호주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검토

- 5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0.4%p 인상도 논의했으나 결국 0.25% 인상에 합의.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정책금리 수준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시장에서는 이를 6월 0.25%p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5/1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기업재고(전월비): 2.0%, 2월(1.8%), 예상치(1.9%)
- 미국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69, 4월(77), 예상치(75)
- 유로존 1/4분기 성장률(수정치, 전년동기비): 5.1%, '21년 4/4분기(4.7%), 예상치(5.0%)

■ 주요 경제 이벤트(5/1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주택착공건수 및 건설허가건수,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수정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빠른 속도의 미국 달러화 강세, 세계경제의 위협 요소 - Financial Times

(The dollar's rapid rise increases risks for global economy)

-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개도국에게 매우 심각한 리스크. 이는 수입가격과 외채비용의 증가,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최근 상당수의 저소득 국가들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 등에 직면하여 타격이 큰 편
- 게다가 선진국으로 자본유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흥국의 성장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동시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 특히 연준의 통화긴축은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급격한 강달러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여타 국가들은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

■ 중국의 성장률 둔화, 대외여건 고려 시 이전과 달리 급격한 회복이 어려운 상황 - WSJ

(Why This Chinese Downturn Is Different)

- 중국 4월 소매매출은 전년비 11.1% 감소하고 산업생산은 2.9%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 이에 당국은 경기부양 관련 논의를 진행. 하지만 인민은행이 일부 경우에만 소폭의 모기지 금리인하를 제공하는 등 실제적인 부양책 시행은 매우 제한적
- 당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등을 감안 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이 자산버블 붕괴 또는 자본유출 등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강력하지 않은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은 결국 저성장의 장기화로 연결될 소지

■ 주요국 물가안정 노력, 금리인상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도 중요 - Financial Times

(Beating inflation will require more than rate rises)

■ 세계 원유시장,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 블룸버그

(The Oil Market Needn't Fear a Calamitous US Recession)

■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위력 증강에 더해 아시아 지역 교류 확대도 요구 - Financial Times

(Biden's China strategy cannot work with weapons alon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